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음 12월 6일) 제22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19년도 전주시정 운영 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신년 기자회견이 10일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특레시 지정 반드시 이뤄낼 것”

김승수 전주시장, 새해 시정운영방향 발표

“단순 인구로 특정하는 것 도시의 다양성 간과한 것”

정부 방침에 대응키로 경제·문화 두 축 전략 제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올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레시 지정을 받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특레시를 지렛대 삼아 전주발전에 한층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새해 시정운영방향으로 경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한 7대 목표 35개 전략도 제시했다. <관련기사 4면> 앞서,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의 특레시 지정노력은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전주시를 비롯한 정주

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등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와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을 지정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만이 지정 될 것으로 보여, 전주시 특레시지정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특레시 지정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는 것은 도시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다”는 논리로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한데 어떤 구체적인 도시 다양성 기준을 제시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먼저 문화의 다양성과, 일자리 창출효과, 주소지의 생활인구만이 아닌 경제인구 즉 직장인으로 인해 낮에 근무하는 경제유동인구도 도시규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소비되는 쓰레기

의 양도 도시의 크기를 가능하는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1퍼센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주시 특레시 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주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실제, 국내 지역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따라서 전주시는 각종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지는 특레시로 지정받아 오랫동안 누적돼온 시민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키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레시로 지정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져,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 지고 인허가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자체 도시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다 폭 넓은 재정

지원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들도 편리해지고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설득문제, 광역자치단체와의 권한쟁의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전주시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전주시와 전북이 타 지역보다 뒤쳐졌던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예산과 인프라가 수도권과 경상권, 광역시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며, “전주가 꿈꾸는 특레시를 반드시 실현하고 전주다움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없습니다.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익산주재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문화재청 올해 첫 공모 '다시 살아난 무장읍성'

조선시대 첨단 화약무기 비격진천뢰 등 발견돼

전북도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공모사업에 고창 '다시 살아난 무장읍성'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은 문화재를 둘러싼 이슈, 갈등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 '다시 살아난 무장읍성'은 지난 11월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에서 조선시대 첨단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와 조선시대 훈련청과 무기고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됐다.

아울러 무장읍성의 군사적 성격을 밝혀준 것을 계기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역사 사적 인식을 넓히고자 역사 강좌, 무장읍성 내 놀이체험, UCC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무장읍성 비격진천뢰 언론공개회.

예정이다. 도 유통육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단순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주변 문화재만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문화재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한바탕 전주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참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